

은세계 티끌마다 부처님 몸

■ (사)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해



푸른산 푸른물이 나의 참모습이니
맑은달 맑은 바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 이르지말라
은세계 티끌마다 부처님 몸 아니런가
심심심(心)이며 난가심이라
마음을 마음이라 하는 마음이어
기회 찾지 어렵도다
크게 나타낼때는 천지도
오허려롭고 작게 쪼그라들때는
바늘 끝으로도 짝일 것 없도다

본성 깨우쳐 피안에 이르자

■ (재)한국불교원광원 이사장 선진



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께서 부모에 수생(受生)하시어 뜻 생명은 반야법신을 구족한 본래부처임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오신 날입니다.
일찍이 삼세제불(三世諸佛)은 만유(萬有)에 평등하시어 진실불허(眞實不虛)의 참 마음으로 적정열반(寂靜涅槃)의 활로(活路)를 제시(提示)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몸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여래께서 지혜와 자비로서 일체중생을 위해 인도(忍土)에 오시었으니 우리 모두 신령스러운 본성을 깨우쳐 자타(自他)가 피안(彼岸)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정진합시다.

부처님 오심은 자유와 평등 선언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산 법진



선학원 설립자의 한 분이신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성탄' 시에서 '부처님의 오심은 이 곳과 저 곳에 밝고 어둠이 없고, 너와 나에 살고 죽음이 없음을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연등과 더불어, 마음속 진리의 등을 환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진리의 등을 밝히려면 믿음을 심지로 하고, 자비를 기쁨으로 하며,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어둠을 소멸하기를,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에게도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등, 한 등 부처님 뜻을 걸자

■ 일통법왕종 종정 해운



"금불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고, 니불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
우리에게 세가지 부처가 있으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어떤 부처님을 맞이 할 것인가. 내안에 부처가 있으니 이 또한 어떤 소식인가. 해마다 부처님오신 날은 어김없이 돌아 오는데 내 안의 부처는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어떤 도리인가.
금불이거나 목불이거나 니불이거나 부처는 한 몸으로 차별이 없는데 사람이 굳이 이를 갈라 놓고 떼어서 부처를 찾는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백운일월역무상 (白雲日月 亦無常)
풍수거래역무상 (風水去來 亦無常)
천지일물무상회 (天地一物 無常外)
만물본래비무상 (萬物本來 非有常)

해와달 흰 구름이 무상하고
물과 바람 오고감도 역시 무상이요
천지간 한 물건마저도 무상할진 데
어찌 만물 중 무상하지 않음이 없으리오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두 손 모읍니다.

부처님 발자취 일깨우자

■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룡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우주의 근원적인 질서에 순응하고 저 무명대정(無名大定)으로 부터서 우리는 부처님 품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맑고 맑음이어 거룩하고 거룩함이어 이제 나의 전신에 깃들어서 우리 모두 부처님의 발자취를 일깨워서 본 각시본(本覺是分)의 자리에 안주하도록 정진합시다.

상생과 나눔 실천 발원하자

■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음



부처님은 사바세계의 탐냄과 성냄과 어리 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시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에 밝히는 연등이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 무명을 지워내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고통이 없는 세상, 그늘진 세상을 밝음으로 이끌기를 큰마음으로 발원합니다.

내가 부처라 믿고 수행정진해야

■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부처님께서는 오늘날 오신것이 아니라 항상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와계십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진리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불성을 믿고 여여하게 생활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금강석 같은 믿음으로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수행해 나갈 때 자신의 부처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가꾸기 위해 뚜벅뚜벅 수행정진 합니다.

술선수범이 자비요 진리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회암



만세를 두고 변치 않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고 범부중생의 부질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세속의 생활을 벗어나 출가 승려로 수행하는 교단의 일원으로써 언제나 중생을 위해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여 성실하게 교화하고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높이는 짓은 수행의 근본이라 할 수 없으니 먼저 깨쳐 술선수범만이 자비요, 보살이요, 진리다.
그러므로 고해가 없나니.

날마다 좋은날 이루자

■ 대한불교화엄종계종 종정 법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로운 불교인의 진정한 도리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인은 항상 상구보리 하회중생 하며,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더불어 항상 참회하여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범부의 어리석음과 고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을 새겨 항상 날마다 좋은날이 될 수 있도록 수행 합시다.
(사진은 덕정 스님께)

습관에 안주하지 말고 정진하자

■ 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어법가립유가증 (於法假立瑜伽中)
약행어일시대의 (若行放逸失大義)
의지차법급유가 (依止此法及瑜伽)
약정수행득대가 (若正修行得大覺)

법으로 거etz 세운 유가 가운데
만일에 방일하면 큰 뜻을 잃고
이 법과 그리고 유가에 의하여
바르게 수행하면 대가를 얻으리
수행과정에서 물든 습관에 안주 말고 정진하여 부처를 이룹시다.

하심으로 화합·공경 이루자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계율을 지킴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同戒和敬)
견해를 지님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同見和敬)
수행함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同行和敬)
서로 예절을 지킴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身慈和敬)
바른 언행을 지님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하며 (口慈和敬)
서로의 뜻을 존중함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을 생활화 합시다. (意慈和敬)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룩한 불자

■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율주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나와 이웃, 자연과 삼라만상은 별개(別個)가 아닌 한 몸, 한 생명 의 동일법성(同一法性)인 것입니다. 연기법 의 깨달을 때, 마음에는 자비심이 생겨나고, 다름과 갈등과 반목이 평화와 행복으로 바뀌 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는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긴급 구호지원이 필요한 빈곤 국가 곳곳에서 활발하게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보살피고, 함께 행복하겠다" 고 서원한 자비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피는 보살행과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사랑의 연등을

■ 파라미터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은 우주의 스승이신 부처님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고, 청소년기를 거쳐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잎과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정성을 담아 연등을 밝히듯 미래의 부처님인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의 연등을 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사바세계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와 남이 없는 일체된 마음으로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연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맑고 아름다운 마음이 지혜요, 뜻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비입니다.
내가 그러하듯 일체 생명을 하늘 위 하늘 아래 두루 평등하고 원천은 둘이 아닌 하나 인 것으로 무엇보다도 비유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 밝은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와 남이 없는 일체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눔은 기쁨으로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온 누리에 환히 비추는 부처님오신날을 발원합니다.

생명나눔은 더불어 사는 기쁨

■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불자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자리아타(自利利他)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나눔은 나, 너, 우리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며,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저희 본부도 더 많은 이웃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모금·홍보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생명나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중생 하나하나가 등불 되는 날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부장 명진



세존께서는 어리석고 캄캄한 중생들의 세상을 광명으로 밝히는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지도자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가진 자는 나눔으로 선근복덕을 베풀어 주고, 얻은 자는 이타의 배움으로 자연의 진리에 순응하는 진정한 연화미소의 소통과 만물동체의 일어난 화합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진리의 꽃비가 사바의 만 중생에게 두루하는 신륵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부처님을 맞이하여 중생 하나하나가 등불이 되어 탁세의 어둠을 걷어내고, 광명천지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자비로 희망과 용기 나누는 삶 서원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님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리아타 정신과 자비 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측은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통부재로 인한 피해와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고, 서민들의 고통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진리를 제시해주시 부처님의 삶을 되새기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주는 삶을 구현하여 정토사회가 구현되길 서원합니다.

자비·나눔·평화가 공존하는 세상

■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리아타의 거룩한 정신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꽃이 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번뇌와 무명 속에 고통 받는 인간과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부처님이 이 땅에 나타신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인류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도록 모든 불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불자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등과 공존 사상 되새기는 날

■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담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간과 자연, 유정물과 무정물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을 파헤친 결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께서 무엇을 우려해서 그렇게 간곡히 공론의 법칙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여의 뜻을 만방에 찬탄하세!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평은 손발 얹어도 큰 모양을 변화시키며
일월은 손발 얹어도 만물을 길러 내듯이
인간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큰 작품을 되찾아
불조의 오신 진여의 뜻을 만방에 찬탄하세!

오늘은 좋은 날!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꽃비가 흠날리는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와 고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만유불성(萬有佛性)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의 앞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분회도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나눔으로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교육에 힘써 미래불교의 주역이 될 새싹들에게 아름다운 부처님의 종자를 심어 주고자 서원했습니다.
법회지도교사와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여 처처(處處)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불교프로그램도 성숙한 불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편견과 편협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 청와대불자회 회장 박재완



부처님은 삼라만상이 서로 의지하며 좋은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청와대 불자들도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이 짧거나 미치지 못한 점을 일깨워 주신다면, 허심(虛心)으로 듣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인 팔정도(八正道)의 참뜻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저부터 편견과 편협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밝힙시다

■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김의정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전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힘들고 배고프며 아픈 이들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의 눈과 마음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간파하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이(理)와 사(事)에 구분이 없고, 정(正)과 사(邪)를 초월하는 자비행으로써 오로지 이웃에게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법신광명이 함께하고 하시는 가업이 승승장구하심을 삼보 전에 삼가 발원드립니다.